‘반전에 반전’ 민주 경선 흥행대박

지역별 순회 당권레이스 판세 대혼전

“이해찬 지지” 지역의원 ‘말발’ 안먹혀

“민주당 대의원들의 ‘유쾌한 반란’이 정권 창출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6·9 전당대회를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당권 레이스를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의 평가다.

민주통합당의 지역 순회 당권 레이스가 예상을 뒤엎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4·11 총선 패배 이후, 별다른 쇄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치적 무기력을 보였던 민주통합당이 내부 역동성을 찾아가며 대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부산,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에서 펼쳐진 지역 순회 당권 레이스에서 당내 주류세력인 친노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해찬 후보의 ‘대세론’은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김한길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울산에서 1위를 차지한데 친노 그룹의 텃밭인 부산에서도 이해찬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22일 치러진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해찬 후보를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이해찬 후보와 김한길 후보의 누적 표차는 불과 28표에 불과한 상황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후보의 ‘대세론’이 균열이 간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상당수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선자들이 지역 대의원들에게 이해찬 후보 지지를 요청했으나 기대만큼 말발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반전의 배경에는 대선을 앞두고 ‘변화’를 원하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대세론’을 뛰어넘는 강력한 변화와 내부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대의원 A씨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역동성”이라며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정권 창출의 희망을 일궈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광주·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김한길 후보가 향후 경선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해찬 후보도 충청과 수도권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 당권을 차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 경선은 그야말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당권 레이스가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반전을 거듭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자 민주당도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23일부터 시작된 당원·국민 선거인단 모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봉하마을서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

유족 등 3000여명 참석…박지원 “정권교체로 보답”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옆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유족과 참여정부 인사, 정관계 인사 등 추모객 3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추모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한완상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의 추도사, 4대 종단 종교 의식, 노건호 씨의 유족대표 인사말, 추모글 집단 낭송, 묘역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한 상임고문은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의 진보를 위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탈상에서 그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한반도를 민족의 평화동산이자 번영의 마당으로 만들려던 꿈 ▶사람 사는 따뜻한 세상을 세우려던 꿈 ▶소통하는 정치의 꿈 등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고문은 나아가 “우리에게는 더 감동적인 바보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 주요인사들도 총집결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해찬·김한길 후보 등이 참석했으며, 문재인·정세균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 등 대권주자와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자치단체장들도 총출동했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2일 경남대 특강에 앞서 봉하마을을 찾아 묘역에 참배한 뒤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의 꿈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이루자고 다짐했습니다”라고 올렸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평소에 말씀하던 깨어 있는 시민 정신으로 12월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게 노 전 대통령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 일정도 잡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끊임없이 비우고 고통을 견디며 깨끗하고 믿음직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끝내 노 전 대통령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이 땅 위에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헌화하는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를 맞아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민주 당대표 경선 후폭풍

대의원 반발…‘이박연대’ 금가나

지난 22일 열린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 결과에 따라 ‘이해찬-박지원 연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광주·전남에서 이해찬 후보가 3위에 머무르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내심 박 위원장의 입김(?)을 기대했던 이 후보 측에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의 지원을 받았던 박 위원장이 이번 경선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외면한 것 아니냐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후보 캠프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에서 박 위원장 측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여기에 당내 대선 주자인 정동영, 손학규 그룹에서도 강력한 비토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가 원칙이며 특정 후보 지지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박 비대위원장은 2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 대표는 대의원, 당원,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호남)대의원들은 민주당의 통합 방법과 결과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 후보가 연설하면서 자신과 손학규 전 대표가 통합을 했다고 몇 번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 후보에 화살을 돌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 결과는 호남 지역에서 박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위원장 측근 인사는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권 레이스에서 ‘이-박 연대’는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수도권 경선 등에서 박 위원장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진보당 다시 내홍

신당권파, 비례대표 사퇴 시한 내일까지 연장키로

구당권파 당원, 강기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으로 잠시 휴전했던 통합진보당 내분 사태가 재점화됐다.

통합진보당 신당권파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경선 비례대표 후보의 사퇴 시한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는 30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국민이 우리에게 혁신의 기회를 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그는 “오는 25일 정오까지 경쟁명부 후보자들의 사퇴서가 당으로 오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그 기회를 부여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지 못할 경우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비대위원 모두가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신당권파는 이들이 25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의 소속인 경기도당기위에 회부하거나 중앙당기위 또는 다른 시도당기위원회에서 출당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인 당원 한모씨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위 안건은 경선 비례대표 총사퇴를 포함한 당혁신과 혁신비대위 구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이유에 대해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檢 통합진보 수사 정당발전 저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정당발전에 저해되는 일로 옳지 않다”며 “통합진보당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명 조치 등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할 때 하필이면 압수수색을 해서 오히려 당 내부를 흔들어버리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 내부의 운명을 검찰에 맡겨놔선 안되므로 늘 조심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다”며 “통합진보당도 자업자득한 면도 있지만 검찰이 정당문제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당원비대위와 달리 혁신비대위에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려 노력하므로 아직 야권단일화를 정리해야겠다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혁신비대위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정비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병완 광주 서구의원

노무현재단은 23일 신임 이사장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선임했다. 재단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을 마친 뒤 봉하마을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문재인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전 비서실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김대중정부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쳐 대통령실장을 거쳤으며, 2010년부터 광주 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프장 및 예식장을 급매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기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남북도 일원의 투자가치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푼 챙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우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우나 (매매)
지역‖북구 삼각동 (사우나 현 성업중)
면적‖대지 약900평, 건평 : 2500평
지역‖첨단지구 월계동 (무인텔 급매매)
면적‖대지 : 338평, 건평 : 440평 객실 : 22실
지역‖광천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사용가능)
면적‖대지 : 약1000평, 건평 : 2803평
지역‖봉선동 대지 314평 매매
지역‖수완지구 롯데마트부근
빌딩상가 매매 및 분양 중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담양 1만평~2만평이상
5만평~10만평
지역‖장성 1만평~5만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

오피스텔 매매

▶총 합계 : 보증금 8,250만 월세 1,425만
▶지하 핸드폰전시장 1
▶사무실 1, 10평 27,11평 6개, 13평 4
▶토지면적 : 509.09㎡(154P)
▶건축면적 : 1375.21㎡(416P)
▶매매가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억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투자금 6억9천7백오십만원으로 월세 1,425만원에서 대출금이자 6% 250만원을 공제하면 월수익 1,175만원으로 연투자수익 20%로 아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 011-684-3886

상가/원룸 매매

▶총 합계 : 보증금 4,500만원 월세 779만
▶1층 편의점 원룸 21개, 투룸 4개
▶토지면적 : 330.58㎡(100P)
▶건축면적 : 737.19㎡(223P)
▶매매가 7억4천만 (융자 2억4천4백포함)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8백만원 융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4억9천 월수익 678만원 년수익을 18%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 011-684-3886

(주)오천경매투자연구소
H. 010-3605-5000

경매투자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입찰반 / 회비 550만원(4명 한)
▶이론반 / 회비 55만원(24명 한)
▶특수물건만 취급
수료증 단독 / 공동투자가능

투자자 모심
▶경매 물건중 특수물건만 투자
▶근저당 1순위 설정 / 가등기
▶최고 년 100% 수익률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부자채권!! IMF때 대박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부실채권(NPL)
다와옥션 호남유일의 정통 NPL교육
제1기 NPL 실전투자과정

교육과정		
	NPL전망및이해	NPL거래구조및경매
	NPL투자의3방식	투자자배당및수익분석
	투자자유입및수익분석	NPL매입과가격협상방법
	NPL부동산확보및투자분석	NPL실전사례및부동산추천

접수기간	2012년5월29일~6월5일
교육기간	2012년6월05일~7월24일
강의시간	매주화요일(주간10시~1시),(야간7시~10시)

!! 국내 유명교수 초빙특강(이영준 교수, 이현준 교수) !!

* 『한국NPL경제연구소』소장,부소장* 태인경매NPL실전투자교수
* 법무법인『바른길』자산관리팀장* 법무법인『덕양』자산관리팀장
* 『부실채권(NPL)과함께하는경매이야기』저자직강

무료 공개강좌
일시 : 5월31일(목)오전10시~12시,야간7시~9시
6월01일(금)오전10시~12시,야간7시~9시
6월02일(토)오전10시~12시
접수 : 전화예약(062)352-8589/선착순40명

Dawa (주)다와옥션 ☎(062)352-8589(代)
『법원경매』의 길잡이! www.dawaauction.co.kr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